

## 다이애나 크롤, 암스트롱 위해 '플라이 투 더 문' 불러

등록 2012.08.27 05:37:53 | 수정 2016.12.28 01:09:22

【로스앤젤러스=AP/뉴시스】양문평 기자 = 가수 다이애나 크롤이 25일 밤 로스앤젤러스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이날 별세한 최초의 월인 닐 암스트롱을 위해 '플라이 미 투 더 문'(Fly Me To The Moon)을 불렀다.

크롤은 우연히 암스트롱과 와인 한 잔을 나눈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.

그는 밤하늘을 응시한 뒤 암스트롱이 막상 이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했다.

yang\_pyung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